

치 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들녘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수확과 결실의 계절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 고불총림 백양사가 만암 대종사의 유훈을 기리고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 깊은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만암스님은 근현대 한국불교사를 관통하는 대종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양사로 출가하여 당대의 대강백 한영스님으로부터 전문 강학을 배우고, 이후 환응스님에게 전강을 받으시고 해인사 전문 강원을 시작으로 후학양성에 정진해 오셨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민족 전체가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스님은 출가본사인 백양사로 돌아와 교육 사업에 매진하면서 광성의숙을 설립하시고 약 100여 명의 학인들과 선과 교, 율장 등 삼장을 공부하며 외전(外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반선반농(半禪半農)을 온몸으로 실천하시며 승가의 자급자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28년부터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초대 교장직을 수행하였고, 1947년에는 광주 정광중학교를 설립하시는 등, 한국불교의 희망과 미래가 교육에 있음을 간파하신 선구자적인 탁견을 지니셨던 이 시대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한국불교 출가수행자가 지켜야할 위의를 생각하시며 평생에 걸쳐 교육 불사에 정진해오셨습니다.

이 같은 가풍이 녹아들어 백양사가 고불총림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해오고 있는 것은, 대종사의 크나 큰 가르침이 백암산 자락에 응혼이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스님은 정화운동의 중심에 서서 한국 불교정화를 이끌었습니다. 1954년 개최된 ‘전국 비구승 대표자회의’에서 종정(宗正)에 추대되어 비구승단을 이끌며 종단의 화합에 진력하셨으며 이후에는 백양사로 내려와 후학양성에 정진하셨습니다.

평생을 두고 출가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셨던 진정한 근대불교의 사표 중의 사표이신 만암 대종사님의 고귀한 정신과 생애를 조명하는 이 자리는 축하의 자리이자 큰 감사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불총림 방장 수산 대종사와 주지 시몽스님, 그리고 고불총림 대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